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1.11.22

미 증시, 매파 연준 우려 속 극단적인 개별 종목 장세로 혼조세

서상영 sangyoung.seo@miraeeasset.com

미 증시 동향

- 미 증시는 개별 종목의 극단적인 차별화 속 보험권 혼조세를 보임. 특히 메타버스, 전기차 업종은 호재성 재료가 유입되며 강세를 보였으나,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에너지 업종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차별화가 진행
- 한편, 오후 들어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영향으로 하락 전환하거나 상승폭을 축소했고, 옵션만기일 영향으로 수급적인 점도 부담 요인
- 다우 -0.75%, 나스닥 +0.40%, S&P500 -0.14%, 러셀2000 -0.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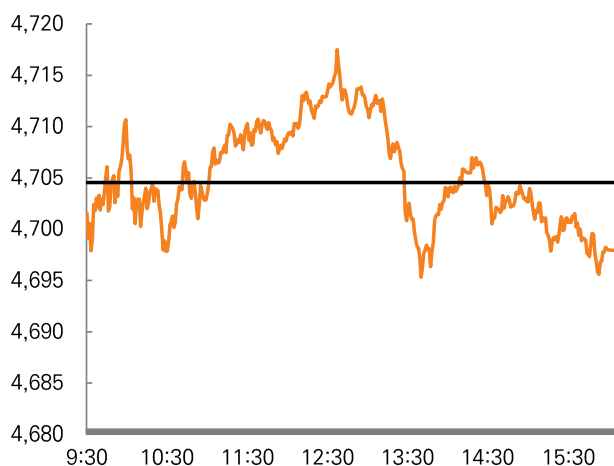
특이 종목

- 마이크론(+7.80%)은 에버코어가 내년 상반기 실적 둔화가 가격에 반영 되었다며 주가는 곧 상승 할 것이고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자 급등
- 엔비디아(+4.14%)는 메타버스 산업이 기업의 낭비를 줄이고 운영 효율성을 높여 수십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는 CEO의 주장으로 상승. 메타버스 관련주도 강세
- 테슬라(+3.71%)는 웨드부시가 목표주가를 1,400달러로 상향 조정하자 상승. 전기차 충전 시스템 수혜주로 루시드(+17.34%), 리비안(+4.23%)가 언급되자 급등

한국 증시 전망

- MSCI 한국 지수 ETF는 0.26% 상승, MSCI 신흥 지수 ETF는 0.16%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91.30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5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05% 하락. KOSPI는 소폭 하락 출발 예상.
- 한국 증시는 미 증시가 옵션만기일에 따른 수급적인 요인으로 종목 차별화가 극단적으로 전개돼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다만,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이후 미 증시의 부진은 한국 증시에도 부담. 특히 달러, 엔화 강세, 국제유가 급락, 국채 금리 하락 등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진 점도 투자심리 위축 요인.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매파적인 연준 정책에 대한 우려를 감안 하락 출발 후 일부 개별 종목에 주목하는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971.02	+0.80	상해종합	3,560.37	+1.13
KOSDAQ	1,041.92	+0.89	홍콩항셍	25,049.97	-1.07
DOW	35,601.98	-0.75	베트남	1,452.35	-1.19
NASDAQ	16,057.44	+0.40	유로스톡스 50	4,356.47	-0.62
S&P 500	4,697.96	-0.14	영국	7,223.57	-0.45
캐나다	21,555.03	-0.38	독일	16,159.97	-0.38
일본	29,745.87	+0.50	프랑스	7,112.29	-0.42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변화 요인

①매파적인 연준 인사 ②개별 기업 변화 요인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는 연준이 테이퍼링 속도를 더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 경제에 관해서는 또 다른 코로나 변종이 발생하지 않으면 4분기와 내년 1분기 미국 경제는 견고할 것이라고 언급. 여기에 고용시장이 최대 고용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또한 높은 수준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FOMC에서 테이퍼링 속도를 더 빠르게 진행해 4월에는 마감 해야 하며, 2022년 2분기에는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놔야 한다고 주장

한편,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은 오후 들어 4분기 경제 성장은 매우 강력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12월 FOMC에서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는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 더불어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 위험이 존재하기에 더 빠른 테이퍼링 속도를 선호한다고 주장.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발언 직후 달러화는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폭을 확대했고, 주식시장은 상승분을 반납하거나 낙폭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한편, 종목별로 보면 극단적인 차별화가 진행된 점도 특징. 마이크론(+7.80%)은 에버코어가 내년 상반기 실적 둔화가 가격에 반영 되었다며 주가는 곧 상승 할 것이라고 주장하자 7%대 급등. 엔비디아(+4.14%)는 CEO가 메타버스산업이 기업의 낭비를 줄이고 운영 효율성을 높여 수십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자 상승. 이는 향후 메타버스 산업의 급격한 확장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에 메타플랫폼(+1.95%), 로블록스(+6.82%)의 강세를 이끔

테슬라(+3.71%)는 중국에서의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 속 웨드부시가 목표주가를 1,400달러로 상향 조정하자 상승. 더 나아가 전기차 산업이 다음 10년 동안 5조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충전 시스템 가장 큰 수혜주로 루시드(+17.34%), 리비안(+4.23%) 등이 부각되자 관련주가 급등. 반면, 엑손모빌(-4.62%), 코노코필립스(-4.28%) 등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 급락 여파로 하락하고 보잉(-5.77%)은 787 드림라이너 결함 소식이 전해지자 급락하며 다우지수 약세 주도

바이든 행정부의 1조 7천 5백억 달러 규모의 사회지출 법안이 하원을 220대 213으로 통과. 인프라투자 법안과 달리 공화당 전원이 반대한 점이 특징. 이에 대해 바이든은 상원 처리를 촉구했으나, 상원은 12월 말에 법안을 표결 할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렇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법안에 대해 상원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와 조 만찬을 비롯한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여전히 반대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 이날 관련 소식이 전해졌으나 금융시장의 변화는 제한. 아직 상원 통과 여부에 대한 불안 심리가 상존하기 때문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마이크론, 엔비디아, 테슬라 급등 Vs. 에너지 부진

마이크론(+7.80%)은 에버코어가 내년 상반기 실적 둔화가 가격에 반영 되었다며 주가는 곧 상승할 것이라며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자 급등. 램리서치(+1.37%)도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자 강세. 다만, AMAT(-5.49%)는 부진한 실적과 가이드스 발표로 급락. 엔비디아(+4.14%)는 CEO가 메타버스 산업이 기업의 낭비를 줄이고 운영 효율성을 높여 수십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자 상승. 이는 향후 메타버스 산업의 급격한 확장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 이 영향으로 메타플랫폼(+1.95%), 로블록스(+6.82%)의 강세를 이끔. 다만 유니티소프트웨어(-5.65%) 등 일부 종목은 차익 매물 출회로 하락

테슬라(+3.71%)는 중국에서의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 속 웨드부시가 목표주가를 1,400달러로 상향 조정하자 상승. 더 나아가 전기차 산업이 다음 10년 동안 5조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충전 시스템 노력의 가장 큰 수혜주로 루시드 모터스(+17.34%), 리비안(+4.23%) 등이 부각되자 관련주 급등. 리비안은 장 마감 후 포드(-0.87%)가 리비안과의 전기차 개발 계획을 취소하자 시간 외로 1%대 하락. 엑손모빌(-4.62%), 코노코필립스(-4.28%) 등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 급락 여파로 하락. 보잉(-5.77%)은 787 드림라이너 결함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4.99	대형 가치주 ETF (IVE)	-0.93
에너지섹터 ETF (OIH)	-5.34	중형 가치주 ETF (IWS)	-0.77
소매업체 ETF (XLY)	+0.43	소형 가치주 ETF (IWN)	-0.98
온라인소매 ETF (EBIZ)	-0.02	대형 성장주 ETF (VUG)	+0.34
금융섹터 ETF (XLF)	-1.09	중형 성장주 ETF (IWP)	-0.42
기술섹터 ETF (XLK)	+0.73	소형 성장주 ETF (IWO)	-0.80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0.60	배당주 ETF (DVY)	-0.84
클라우드 ETF (CLOU)	-1.66	신흥국 고배당 ETF (DEM)	-0.51
미국 리츠 ETF (VNQ)	-0.59	신흥국 저변동성 ETF (EEMV)	-0.28
주택건설업체 ETF (XHB)	+0.23	미국 국채 ETF (IEF)	+0.27
바이오섹터 ETF (IBB)	+0.57	하이일드 ETF (JNK)	-0.07
헬스케어 ETF (XLV)	-0.61	물가연동채 ETF (TIP)	-0.18
곡물 ETF (DBA)	+0.25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38
반도체 ETF (SMH)	+0.63	모멘텀 ETF (MTUM)	-0.66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IT	3,005.82	+0.77	+2.37	+8.04
유틸리티	340.62	+0.58	+0.92	-0.30
경기소비재	1,673.27	+0.34	+3.81	+9.72
소재	554.03	-0.16	-2.00	+4.00
커뮤니케이션	274.93	-0.29	-1.00	+1.97
필수소비재	750.13	-0.29	-0.96	+1.27
산업재	892.29	-0.53	-1.20	+0.74
부동산	300.97	-0.56	-0.06	+1.02
헬스케어	1,547.73	-0.65	-0.68	+0.87
금융	647.83	-1.11	-2.82	-4.05
에너지	411.91	-3.91	-5.22	-6.29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매파적인 연준 Vs. 반도체, 전기차, 메타버스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는 0.26% 상승, MSCI 신흥 지수 ETF는 0.16%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91.30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5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05% 하락. KOSPI는 소폭 하락 출발 예상.

지난 금요일 한국 증시는 애플카 출시 기대 속 관련주가 급등한 가운데 엔비디아 실적 호전 등에 기반해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인 점,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수요 증가 대로 투자 확대를 발표하데 힘입어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자 코스피가 0.8% 상승

이런 가운데 미 증시는 옵션만기일에 따른 수급적인 요인으로 종목 차별화가 극단적으로 전개돼 한국 증시 또한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다만,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이후 미 증시의 부진은 한국 증시에 부담. 특히 달러와 엔화 강세, 국제유가 급락, 국채 금리 하락 등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진 점도 투자심리 위축 요인

이 영향으로 한국 증시는 하락 출발이 예상되나 마이크로이 반도체 산업 부진 영향의 선반영 등에 주목하며 7%대 급등한 점, 전기차 산업과 메타버스 산업의 확장성에 대한 기대 심리로 관련주가 강세를 보인 점은 우호적.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매파적인 연준 정책에 대한 우려를 감안 하락 출발 후 일부 개별 종목에 주목하는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결과

독일 생산자 물가지수 급등, 영국 소매판매 개선

독일 10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달 발표(mom +2.3%)나 예상(mom +2.0%)를 상회한 전월 대비 3.8% 상승해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됨을 보여줌

영국 10월 소매판매는 지난달 발표(mom +0.0%)나 예상(mom +0.5%)를 상회한 전월 대비 0.8% 상승. 비식품 매장은 전월 대비 6.2% 증가. 식품 매장은 전월 대비 0.3% 감소했으나 코로나 이전보다 3.4% 높았음. 온라인 소매판매 비율은 27.3%로 하락해 2020년 3월(22.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나 코로나 이전인 2020년 2월의 19.7% 보다는 높은 수준

”
상품 및
FX시장 동향
”

국제유가 급락 Vs. 비철금속, 철광석 급등

국제유가는 일본이 전략 비축유를 방출에 합의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유럽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되자 급락. 특히 오스트리아가 22일부터 전국적인 봉쇄를 발표하고, 독일도 백신 미 접종자의 문화 활동을 제한할 계획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점도 부담. 더 나아가 12월말 만기 일이라는 점을 감안한 수급적인 요인 또한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 반면, 천연가스는 3%대 상승

달러화는 코로나 확산 여파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자 상승. 더 나아가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과 윌러 연준 이사가 테이퍼링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점도 달러 강세 요인. 엔화 또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인 반면, 유럽 중심으로 코로나 급증세가 이어지자 유로화는 달러 대비 0.7% 약세. 더 나아가 라가르드 ECB 총재가 내년엔 금리인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리인상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주장한 점도 유로화의 달러 대비 약세 요인

국채금리는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과 윌러 연준 이사가 테이퍼링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자 단기물은 상승 했으나, 장기물은 코로나 확산 여파로 되돌림이 유입되며 하락하는 혼조세로 마감. 물론 장중 하락폭이 컸으나, 오후들어 낙폭이 축소되거나 상승 전환 하는 경향을 보이는 등 매파적인 연준에 대한 영향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

금은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 구리 및 비철금속은 경기에 대한 자신감 유입되며 강세. 곡물은 달러 강세 및 일부 되돌림이 유입되며 하락. 특히 프랑스 옥수수 수확이 마감되어가고 있다는 점도 하락 요인.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4.00%, 철근은 3.97% 상승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75.94	-3.15	-4.71	Dollar Index	96.031	+0.51	+0.95
브렌트유	78.89	-2.89	-3.99	EUR/USD	1.1290	-0.71	-1.35
천연가스	5.07	+3.33	+5.72	USD/JPY	113.99	-0.24	+0.09
금	1,854.30	-0.52	-0.88	GBP/USD	1.3451	-0.32	+0.28
은	24.84	-0.46	-2.18	USD/CHF	0.9278	+0.21	+0.68
알루미늄	2,679.50	+2.43	-0.76	AUD/USD	0.7235	-0.58	-1.32
전기동	9,646.50	+2.17	-0.66	USD/CAD	1.2640	+0.30	+0.72
아연	3,238.00	+2.50	-0.90	RUB/USD	0.0136	-0.44	-0.87
옥수수	577.00	-0.39	-1.37	USD/BRL	5.6102	+0.79	+3.80
밀	834.25	+0.42	+0.69	USD/CNH	6.3903	+0.16	+0.16
대두	1,263.25	-0.16	+1.53	USD/KRW	1,185.30	+0.42	+0.48
커피	233.40	+1.85	+5.16	USD/KRW NDF1M	1,191.30	+0.63	+0.87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546	-3.93	-1.51	스페인	0.381	-5.50	-7.70
한국	2.380	+4.50	+3.00	포르투갈	0.297	-4.60	-7.40
일본	0.080	+0.10	+0.40	그리스	1.154	-2.10	-5.40
독일	-0.342	-6.70	-8.30	이탈리아	0.862	-5.70	-9.1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